

서민 대표 음식 라면값 ‘줄인상’…한개 2000원 육박

농심, 용기면·봉지면 등 20종 올려
편의점 판매 가격도 100~200원 ↑
오투기도 인상…분식점 5천원 넘어
“서민 소비재 가격인상 신중해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라면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라면 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2000원에 육박하는 라면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농심의 라면 제품은 용기면과 봉지면 약 20종의 가격이 올랐다. 농심은 탄핵정국인 지난 3월 라면업계에서 가장 먼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편의점에서 농심 라면 판매 가격은 대체로 100원씩 올랐으며 일부 200원 오른 경우도 있다. 인상률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 안팎이다. 농심 라면 제품 중에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는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신라면 대컵은 1500원으로 100원 올랐는데 신라면건면 대컵은 200원 올라 1800원이 됐다. 신라면통바, 신라면블랙, 신라면더레드 용기면도 1800원이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음료 하나를 같이 먹으면 6000원 정도가 된다. 오투기는 참깨라면 대컵, 스낵면 대컵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다. 진짬뽕 대컵, 열튀김우동 대컵, 열치즈

라면 대컵, 열광라볶이, 짜술랭 대컵, 마술랭 마라탕은 가격이 2000원이다. 오투기는 2000원이 넘는 제품도 있다. 마술랭 마라상귀는 2300원이고, 빅컵누들은 2500원이다. 팔도 제품에선 김뚜경 대컵이 1800원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삼양식품은 이번엔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제품인 불닭볶음면 제품군의 가격 편차가 크다. 봉지면 기준 불닭볶음면은 1250원이지만 까르보불닭볶음면은 1700원이며 불닭볶음탕면은 1800원이다.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라면 한 그릇 가격은 5000원을 넘기도 한다.

분식 프랜차이즈인 고봉민김밥과 김가네에서는 일반 라면이 매장에 따라 4500원~5000원이고, 떡 등을 넣으면 더 비싸진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분식집에서도 대체로 일반 라면은 4500원선이고, 떡이나 치즈가 들어가면 5000원 수준이다. 짬뽕라면 등은 6000원에 판매된다. 한 분식집 사장은 “동네 장사라 가격을 올리기 어렵지만 라면 가격과 계란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라면 가격을 500원 올릴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라면은 빵, 커피, 밀가루 등과 함께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품목이다. 2023년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라면값

을 인하하라고 압박했을 정도다. 농심, 오투기, 팔도의 가격 인상은 계엄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업계 1위 농심이 지난 3월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한 달 사이에 오투기와 팔도가 앞다퉈 가격을 올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라면은 1년 전보다 6.2%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의 세 배 이상이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민 소비자인 라면은 가격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연합뉴스

광주은행, ‘끼리끼리 모임 서비스’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 오는 8월 31일까지 '끼리끼리 모임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 시작일 기준으로 '모임주(개설자)'가 처음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입출금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든 후, 모임원 1명 이상이 초대를 수락하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으로는 △첫째, 모임원 1명 이상이 초대 수락 시 5000원 지급 △둘째, 모든 모임원(모임주 포함)이 1회 1만원 이상 입금 시 5000원 지급 △셋째, 모든 모임원이 월 1회씩 3개월 연속 입금하고, 3회차 월 말일 기준 잔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하며,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2만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모임주 기준 1인당 최

대 3개 계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미 응모한 모임과 모임원 중복(1인 이상)이 있을 경우 참여 불가능하다. 또한, 선착순 500좌에 한해 지급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주은행의 '모임 서비스'는 광주은행 모바일 앱 '광주Wa뱅크' 내 기능으로, 모임을 개설한 후 구성원을 초대해 회비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함께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광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광주Wa뱅크' 앱 가입만으로 모임원 참여가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초저전력 디지털 광고판 ‘컬러 이페이퍼’ 출시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 적용 전용앱으로 콘텐츠 제작·관리

삼성전자가 전력 공급 없이도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는 디지털 광고판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8일 출시했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의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로, 제품 혁신성을 인정받아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올해 최고의 제품상’ 3관왕에 올랐다. 화면을 유지하는 동안의 소비전력은 0.00와트이고, 화면 변경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모하는 전력이 현저히 낮아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모델명:EM32 DX)은 32형 사이즈 1종으로, QHD(2560x1440) 해상도와 16대9 화면비가 적용됐다. 종이처럼 얇은 초슬림 디자인으로 가장 얇은 부분은 8.6mm에 불과하다. 충전 타입의 착탈식 배터리를 적용했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2.5kg에 불과해 설치와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함께 제공되는 거치용 악세사리를 활용해 벽이나 천장 레일 와이어에 걸 수 있고, 테이블 형태로도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상업 환경에 조화롭고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USB-C 포트 내장, 8GB 플래시 메모리,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 등을 지원해

호환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컬러 이미징 알고리즘’ 기술로 콘텐츠를 최적화해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한다. 풍부한 색상과 부드러운 경계선 처리, 매끄러운 그라데이션으로 기존 종이 포스터 등 실제 광고물과 비슷한 수준의 콘텐츠를 재현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의 사이니지 콘텐츠 운영 플랫폼 ‘삼성 VXT(Visual eXperience Transformation)’를 통해서도 실시간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 ‘삼성VXT’를 통해 기존 사이니지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고, 이페이퍼 전용 콘텐츠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전용 모바일 앱인 ‘삼성 이페이퍼 앱’을 통해 콘텐츠 플레이 리스트, 교체 시간 등의 설정과 제품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해당 앱을 통해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간단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

제 1175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4	6	8	32	42	3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3억8403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01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5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신세계, 여름철 여성 모자 선풍
광주신세계가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신소재를 이용해 우아함과 기능성이 결합된 여성 모자 아이템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 위치한 ‘에릭자비츠’는 1985년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적용시킨 특수소재인 스퀴시(Squishee)를 사용해 기능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에릭자비츠는 촉감과 통기성, 내구성이 뛰어나며 형태의 변화에 유연해 보관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분에 강한 장점이 있어 수영장, 해변가 등에서 착용하기 좋다. 에릭자비츠는 신규 오픈을 기념해 오는 7월31일까지 10% 할인 금액에 5% 추가할인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상의, 지역 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 ‘성과’

필리핀 개척단 24만달러 구매 상담 유망기업 수출 다변화 등 지원 확대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한 필리핀 시장개척단이 큰 성과를 거뒀다. 8일 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세부 일원에 ‘서해·제주FTA센터 필리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수출 확대에 나섰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에프아이티㈜, 유림

제과(유), ㈜유기농마루 등 광주지역 유망 중소기업 3개사를 비롯해 전남, 제주,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의 15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현지 시장조사,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특별행사 등이 진행됐다. 현지 유통업체 및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을 위한 MOU 체결은 물론 후속절차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 또한 활발히 이뤄졌다. 필리핀 세부는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 소비시장으로,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기반의 경쟁력 있는 상

품군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사전 시장조사는 물론 참가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바이어 매칭과 통·번역 등 수출상담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기업들은 현장에서 약 24만달러(한화 약 3억3000만원) 규모의 구매의향을 확인했으며, 1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을 비롯한 수출 관련 후속 논의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원난기업연합회, 경제·무역·투자 협력

주광주중국총영사와 간담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 한국원난기업연합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구정지 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무협약은 광주경총과 원난기업연합회 간 경제, 무역, 투자 지원을 비롯해 회원기업 발전과 양국 우호관계 개선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체결했으며, 주요 협력 분야로는 △주요 생산품 판로 및 투자 환경 조성 등 경제교류 지원 △회원 기업의 수출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공유 지원 △경제 교류단, 투자 유치단 등의 상호 방문 및 친선 지원 등이다. 광주경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